

데이터 생태계의 시작, 데이터 플랫폼

임태훈
고려대학교

요약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말한다. 데이터 플랫폼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본 구조는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소유자, 플랫폼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가 필요하며 시스템 측면, 운영 관리 측면, 데이터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I. 서론

데이터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1], 수집·가공·분석 등의 처리를 통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생산해 낸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등장은, 데이터를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데이터는 지식정보 시대의 원유이자, 4차산업 혁명 시대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회자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데이터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 경제 사회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조직의 혁신 역량이자 성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산업과 공공 부문 모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지식정보, 디지털 자원,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용어가 쓰였지만, 중국에는 데이터를 축적하는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 데이터 연계와 융합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와 확장, 이를 위한 표준화가 주목받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 플랫폼의 개념, 구조와 기능, 관련 정책 현황,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방향, 표준화 관점에서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한다.

II. 데이터 플랫폼의 개념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지만, 근래에는 웹 또는 앱 서비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익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은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플랫폼(platform)[2]

- ①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일종. 구조(architecture),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관련 런타임 라이브러리 또는 그래픽 사용자



그림 1. 기차 플랫폼 (pixabay 무료 이미지)

-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 등을 포함한다.
- ②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 기업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플랫폼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두 번째 정의를 데이터 플랫폼에 응용해 보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며, 개인과 기업 모두 데이터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참여자들에게 가치 창출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된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III.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데이터 플랫폼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본 구조는 같은 생태계를 갖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참여자(player)에는 플랫폼 소유자, 플랫폼 이용 장치 공급자,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 등이 있다. 플랫폼 소유자는 플랫폼의 지적재산권과 관리 방식을 제어한다. 플랫폼 이용 장치 공급자는 플랫폼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데이터 공급자(또는 데이터 생산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또

는 직접 데이터를 공급한다. 데이터 수요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활용한다[3]. 데이터는 웹이나 앱 서비스와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점차 데이터 셋(set) 자체가 유통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내 참여자들의 역할은 가변적이다.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 수요자이기도 하며, 데이터 수요자가 데이터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개인, 다른 데이터 플랫폼 모두 데이터 공급자인 동시에 데이터 수요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곳에 각각 흩어져 활동하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데이터 공유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와 가치를 교환하게 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 조직들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어 조직 내부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플랫폼을 조직 외부 환경에 노출하지 않고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점차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소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바로 경쟁력을 인식하고, 데이터 플랫폼 소유자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제하는 역할에서, 구성원 간 데이터 플랫폼의 자원을 조정하는 역할로 비중을 이동하게 된다.

또, 조직들은 조직의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수집, 관리, 보관을 위해 내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반면, 다른 조직의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 인력과 자원을 덜 소모하고, 외부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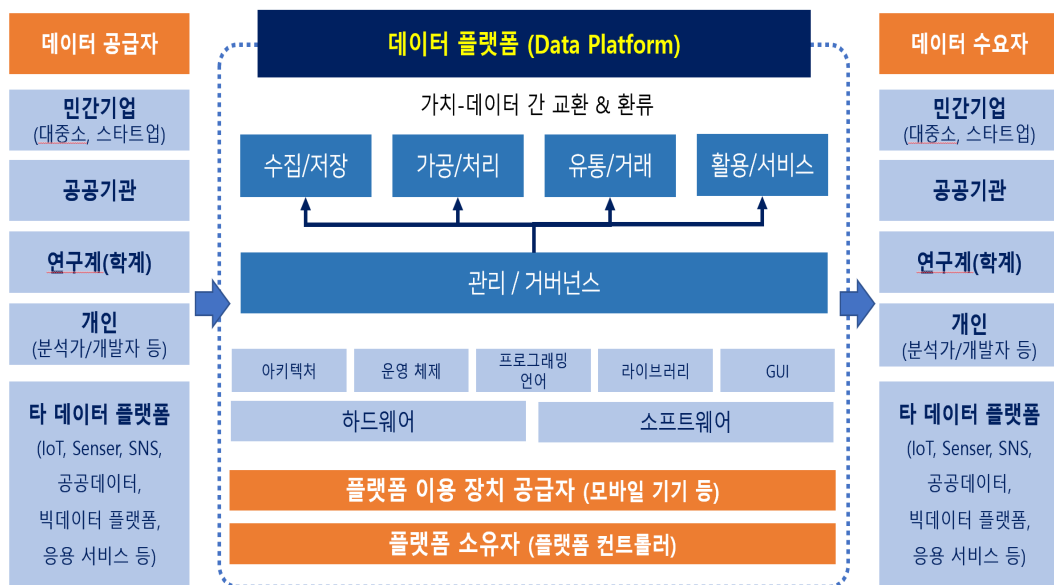


그림 2.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호 작용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외부 지향성으로 인해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생산 단가는 더욱 절감된다. 이 때, 데이터 플랫폼 소유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절차 통제’보다는 ‘생태계 참여자 및 데이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조직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개인, 기업, 정부 등)를 대상으로 가치를 창출하였으나, 데이터 플랫폼의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환류(피드백) 절차를 통해, 점차 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가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자가 데이터 플랫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참여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요약하자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의 진입 비용이 감소하고 플랫폼 내부 주체와 외부 주체들 간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4]. 데이터 플랫폼 제공자와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창출한 가치를 이용하는 상생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3]. 사용자 또는 조직 간의 관계 형성, 그리고 자유로운 참여와 새로운 가치 창출, 혜택의 배분까지 원활하게 데이터 생태계가 운영되려면 참여자 간의 충돌을 방지할 프로토콜, 즉 표준이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화 해야 할 대상은, 앞서 살펴본 플랫폼의 첫 번째 정의에 나타나 있는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조(platform architecture)와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이다. 플랫폼의 시스템 측면의 표준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와 원칙, 절차, 운영 관리에 관한 거버넌스 측면의 표준도 필요하다. 거버넌스 차원의 표준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데이터 플랫폼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참여자들이 더 많아진다. 플랫폼의 시스템 차원의 표준화, 조직 운영 등 거버넌스 차원의 표준화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처리하여야 품질과 활용성이 높아지므로, 수집하는 데이터 또한 표준화 대상임은 물론이다.

IV. 정부 데이터 플랫폼 정책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5].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 체감형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선제적·맞춤형 공공 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의 중점 추진과제 마련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 점검,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 플랫폼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이용자가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 부처 데이터를 공유·연계·분석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여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며,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 부처 과제와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게 된다.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들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V.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방향

초기에는 통계·보건의료·통신·금융·관광 등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후 각각의 데이터 플랫폼은 그 구축 목적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조직 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초기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역시 업무 효율화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직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조직 내부 데이터와 융합·분석해야 할 수요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 플랫폼들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융합·분석·유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여러 공공 플랫폼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구축되었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 데이터 플랫폼들과의 연계와 결

합을 통해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상품으로서의 데이터를 유통·거래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양측에서 데이터 플랫폼이 확산되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더욱 촉진되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과 함께 데이터 신 산업이 육성될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의 최종 지향점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 촉진, 데이터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 이용자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분석하는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직의 내부 자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핵심 역량과 새로운 외부 지향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외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고품질·표준화하여 수집 및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 내 개별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가능해야 한다. 또 데이터 플랫폼 스스로도 신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플랫폼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다른 플랫폼 이용자와 상생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확장하는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가 데이터 축적, 개방·공유·융합, 혁신 창출·공유·지원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유·협업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데이터 플랫폼 소유자는 주체 간 호환성과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주체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혁신을 창출·공유·지원하는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 주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쉽게 분석해, 맞춤형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용자 누구나 데이터 플랫폼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 저장 → 분석 → 활용 → 이관·폐기"의 데이터 생애 주기 전(全) 단계에 데이터 품질 및 정보보안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흔히 플랫폼들은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와 관리 방식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를 도입하면서 개방적으로 바뀐다. 성공적인 데이터 플랫폼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단 한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시작한다. 이후 관련있는 데이터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호작용에 참여해 가치와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모든 데이터 플랫폼은 반드시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소비자 간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3].

다섯째,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정책 측면에서,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자들이 승인 등의 조건 없이도 여러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도록 허용하되 창출된 가치를 공급자와 공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공익 목적의 데이터 플랫폼은 승인이 필요없는 혁신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저품질의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가 플랫폼에 유입되면 전체 데이터 플랫폼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은 플랫폼의 무질서한 외연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환류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으면 데이터 공급자 또는 데이터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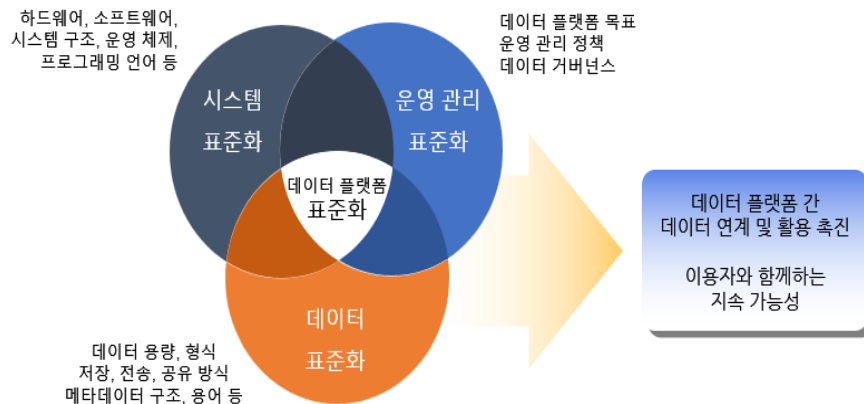


그림 3.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VI.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데이터의 연계와 결합의 과정에서, 데이터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표준·품질 확보 및 데이터 간 연계 표준, 수요 기반의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수익 모델 정착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었기에, 사용자의 데이터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표준화 및 품질에 있어 플랫폼 간 격차가 발생하여,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목적과 투자 비용이 서로 달라, 이로 인한 표준 및 품질 간 차이가 발생하고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려워진다.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만으로는 최종 지향점인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 촉진, 데이터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 운영자들은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 플랫폼들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융합·분석·유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는 시스템 측면의 표준화, 운영 측면의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 표준화는 데이터 플랫폼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관한 것이다. 기차 플랫폼에 비유하자면, 기차역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떤 크기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규격이라 하겠다. 기차의 길이에 적합한 승강장을 갖춰야 하며, 기차의 무게를 감당할 적절한 버팀목과 철로를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은 수집, 관리, 활용하려는 데이터의 용량과 처리 방식,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와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데이터 호환에 영향을 끼치므로 범용성과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에 따라, 구조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기능과 구조 확장이 용이하고 유연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를 표준 모형으로 정하고, 버전(version)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운영 관리 측면의 표준화는 체계적인 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데이터 관리 정책,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기차역의 운영 시간과 적절한 인력의 배치, 운송 요금 체계 등 기차 플랫폼의 운영과 관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방식이 상이할 경우에도 데이터 호환에 큰 장애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어

떤 데이터를 취급하고,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할지, 누가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인지 데이터 관리 정책과 거버넌스 역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표준화는 플랫폼을 드나드는 기차의 규격에 관한 것이다. 기차의 길이, 무게, 폭, 구조가 일정한 규격을 넘으면 플랫폼에 진입할 수 없다. 데이터 역시 용량과 형식, 저장·전송·공유 방식이 일정 부분 표준화되어 있어야 호환 가능하다. 메타데이터 구조 표준 및 관리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연계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의 데이터 입력 항목 중 연계가 필요한 항목의 명칭과 의미, 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데이터 항목의 용어 관리에는 시스템화된 용어집(용어 사전)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용어집 양식 또한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데이터의 원본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 갱신 주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메타데이터 표준 및 갱신 주기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안심 구역 등의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열람과 분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데이터 개방 정도 또한 데이터 관리 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데이터 개방·분석·유통 등 데이터 수명주기 단계별 준칙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 표준화, 운영 관리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가 별개의 영역은 아니며, 표준화를 각각 진행해서도 안된다. 이 3개 부문의 표준화는 서로 큰 영향을 끼친다. 시스템은 운영 관리와 데이터에, 운영 관리는 시스템과 데이터에, 데이터는 시스템과 운영 관리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모바일 기기로 확장되면, 운영 관리 방식 또한 무선 환경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 또 무선 환경에 맞춰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된다면 이는 다시 시스템과 운영 관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관리 방식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에 영향을 끼친다. 데이터 수집 방식 중 하나인 스크린 스크래핑을 금지하거나, 가명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변화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데이터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시스템 표준화, 운영 관리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표준화를 지속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가 중단된다면, 그 데이터 플랫폼은 생태계에서 사장되고 말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는, 데이터 생태계의 시작인 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Acknowledgement

본 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 플랫폼 퍼실리테이터 이슈리프트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참 고 문 헌

- [1]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일자 : 2022-07-21) 제2조(정의) 4의 나.
-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접속일시 : 2022.07.30.)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2321-3
- [3] Marshall W. Van Alstyne, Geoffrey G. Parker, and Sangeet Paul Choudary,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2016.를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플랫폼 생태계 부상에 따른 새로운 전략의 규칙, April 2016.에서 재인용.
- [4] 홍길표·이립, 플랫폼 시대의 공공혁신 : 공동창조 생태계가 답이다., KMAC 미디어. 2016.
- [5]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 2022.5.2.
-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2022.09.02.
- [7] 행정안전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보도자료, 2022.7.26.

약 력



임 태 훈

1996년 동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2013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자정부)
2000년~2020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 마이데이터 팀장
2020년~현재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